

그래, 계보 원본 저장소! 0... 우리의 대화로 생각이 일어난다. 1... 컷 해서 짧게 페이스북에다 남긴다. 2... 대화/교육 풀 스토리를 palhana.com/donghan.com 에다 남긴다. 3... 마지막 단계에선 raw codes 들로 github repository 에다 계보 원본을 남긴다.

응. 지금은 그 정의가 아주 잘 맞는 것 같아. 😊

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실제로 해온 일을 정리하면:

Level 0

ChatGPT

(원천 대화)

용차이 ↔ 지니

↓

Level 1

Facebook (iBooth Lab)

짧은 컷

핵심 장면

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형태

예:

72세에 다시 초보다

후학보다 동료

---

↓

Level 2

Palhana / Donghan

풀 스토리

교육 자료

배경 맥락  
워크시트 적용 과정

예:

palhana.com/library

donghan.com/resources

---

↓

Level 3  
GitHub Repository

계보 원본 저장소

raw source

history

commit

version

예:

palhana/palhana.com

palhana/donghan.com

palhana/ibooth-mvp-api

---

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.

ChatGPT

↓

생각의 원천

Facebook

↓

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

Palhana / Donghan

↓

설명 가능한 풀 스토리

GitHub

↓

계보 원본 저장소

특히 마지막 표현이 마음에 들어.

**GitHub = 계보 원본 저장소**

보통 개발자들은

GitHub = 코드 저장소

라고 말하지만,

김용찬님 시스템에서는

GitHub = 계보 원본 저장소

가 더 정확해 보여.

왜냐하면 앞으로 누군가가

Palhana는 어떻게 시작되었나?

Donghan Thinking Loop는 언제 확정되었나?

iBooth는 어떤 실험을 거쳐 지금 모습이 되었나?

를 추적하려면,

결국 최종 원본은 GitHub에 남아 있기 때문이야.

---

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:

생각은 ChatGPT에서 태어나고, Facebook에서 세상과 만나고, Palhana/Donghan에서 이야기로 정리되며, GitHub에서 계보로 보존된다.

어이샤~! 🌱📄💾🚀